‘벼랑 끝’ 광주FC, 파이널A 진출 불씨 살린다

내일 안방서 포항과 30라운드
7위 vs 6위… 승점 6점 맞대결
정호연·아사니 대표 차출 공백
오후성·박태준 등 출격 대기조

패배는 사실상 파이널B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최근 리그에서 3연패에 빠지며 벼랑 끝에 몰린 광주FC가 순위표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포항스틸러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파이널A 진출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광주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A매치 휴식기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충분한 충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광주 선수단이다.

광주는 올 시즌 12승 1무 16패(승점 37)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파이널A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위 6개 팀에 들어야 하는데 포항이 12승 8무 9패(승점 44)로 6위에 위치했다.

정규 라운드를 네 경기 남겨둔 상황에서 광주는 최소 3승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남은 네 경기가 포항을 시작으로 제주유나이티드(8위·승점 35), 김천상무FC(4위·승점 47), FC서울(5위·승점 46)까지 모두 경쟁권에 있는 팀인 만큼 패배가 곧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광주는 정호연과 자시르 아사니의 국가대표팀 차출로 전력 누수가 생겼다. 정호연이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아사니가 2024-2025 UEFA(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를 소화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정효 감독은 정호연과 아사니의 공백을 메울 자원으로 중원에는 박태준과 이강현, 측면에는 오후성과 정지용 등을 준비시킬 전망이다. 앞서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충분한 점검을 마친 바 있다.

특히 오후성의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지난달 28일 울산HDFC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그는 상대 수비를 헤집는 드리블에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갖춰 이정효 감독의 새로운 공격 카드로 낙점됐다.

베테랑들이 복귀한 수비 라인의 안정화도 기대 요소다. 공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장신 자원 허율이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이탈한 상황이지만 안영규와 이민기 등 베테랑들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또 안영규와 이민기와 호흡을 맞출 변준수와 김진호 등 젊은 피들의 존재감도 강력하다.

포항은 최근 리그에서 5연패에 빠지며 가파른 하락세에 빠졌다. 특히 이 기간 13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에 불안함이 있는 상태고, 직전 경기인 울산전에서는 다섯 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광주는 이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최전방에서는 이건희와 베카가 상대를 흔들 수 있고 측면에서는 문민서와 안혁주, 이희균, 김한길 등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속도에 강점이 있는 가브리엘 티그랑과 정지용이 투입된다면 좌우에 가운데까지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공격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경기를 앞두고 광주FC는 최근 열성 팬으로 떠오른 그룹 노라조의 조빈을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노라조는 광주FC를 위한 응원가 ‘봉황승천가’와 ‘광주수호대 빛고을’에 이어 ‘Let’s fly Let’s shine, Gwangju’를 발매하고 구단에 헌정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황희찬(오른쪽)이 지난 10일(한국 시간)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오만과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손흥민과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홍명보호, 오만에 3-1 승

황희찬·손흥민·주민규 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만을 상대로 첫 승전고를 울렸다.

한국은 지난 10일(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 오만과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기면서 맛봤던 좌절을 딛고 일어나 한국은 3차 예선 첫 두 경기를 1승 1무(승점 4·골득실 +1)로 마치며 B조 2위로 올라섰다.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과 팔레스타인전에서 아쉬운 경기력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홍 감독은 이번 승리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만전에서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해 선발 명단에서 5명을 바꿨다. 오세훈(마치다), 황희찬(울버햄튼), 박용우(알라인), 이명재(울산), 정승현(알와슬)이 첫 선발 출격했다.

먼저 오세훈이 주장 손흥민(토트넘), 황희찬과 삼각 편대를 구축해 공격 선봉에 나섰으며 중원에선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박용우(알아인)가 공수 조율을 맡았다. 포백 수비는 이명재, 김민재(바이에른뮌헨), 정승현, 설영우(즈베즈다)가 지켰다. 골키퍼는 조현우(울산)가 유지했다.

한국은 전반 10분 손흥민이 짧게 내준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오른발 슈팅으로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이에 오만은 전반 47분 하비브 알 사디의 프리킥 슈팅이 헤딩 경합을 하던 한국 정승현의 머리를 스치며 동점골에 성공,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당초 오만 아흐메드 알카미시의 득점으로 기록했으나 정승현의 자책골로 정정했다.

후반 6분에는 손흥민이 오만 수비수 암자드 알하르티와 경합 과정에서 왼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지만, 온 필드 리뷰를 통해 주심이 판정을 번복하며 페널티킥이 취소됐다.

홍 감독은 후반 23분 오세훈, 설영우를 빼고 이재성, 황문기를 투입,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전진 배치됐고 후반 37분 손흥민은 이강인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후반 40분 미드필더 박용우 대신 정우영(울산)을 투입했으며 후반 44분에는 주민규(울산), 엄지성(스완지시티)을 투입했다.

16분의 후반 추가시간이 주어졌고, 한국은 후반 5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지막 골을 성공시켜며 3-1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대표팀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3차전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 4차전 홈경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1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타이거즈에 지명된 선수들이 심재학(왼쪽 7번째) 단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대세는 투수’ 아기 호랑이 11명 얼굴 공개됐다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투수 8명·외야수 2명·내야수 1명
KIA, 1R 덕수고 우완 투수 김태형
심재학 “스카우트 만장일치 선택”

KIA타이거즈가 2025시즌 합류할 새 얼굴들을 지명했다. 1라운드 김태형을 시작으로 11라운드 박헌까지 모두 11명의 이름이 불렸고, 이 중 8명이 투수로 마운드 보강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KIA는 1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5순위로 덕수고 투수 김태형을 지명하는 등 투수 8명과 외야수 2명, 내야수 1명 등 총 11명을 지명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서림초-화순초-화순중을 거쳐 덕수고에 진학한 김태형은 186㎝, 91㎏의 체격을 지닌 우완 투수다. 고교 무대에서 최고 구속 153㎞를 기록했고,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구종을 갖춰 이번 드래프트 TOP 5로 평가받아 왔다.

김태형은 주말리그에서 최근 2년 연속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위력을 떨쳤다. 지난해 19경기에서 59.1이닝을 소화하며 8승 1패, 평균자책점 2.14를 기록했고 올해 19경기에서 55.2이닝을 소화하며 5승 1패, 평균자책점 2.09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지난해 6월10일 주말리그 청원고와 맞대결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바 있다. 김태형은 당시 9이닝 동안 117구를 던지며 15개의 탈삼진을 챙겼고 2볼넷, 1폭투만 허용하며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심재학 단장은 지명 직후 “김태형 선수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공 던지는 능력은 매스컴을 통해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며 “스카우트 팀이 만장일치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롤 모델이 양현종 선수였다. 꼭 같이 한 번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올해 최대의 찬사인 ‘너 땀시 살어야’를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형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KIA타이거즈에 뽑혀 정말 좋다. 저를 뽑아주신 스카우터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KIA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선수들을 보며 성장했다. 꼭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는 김태형에 이어 전주고 투수 이호민과 인천고 외야수 박재현, 공주고 투수 양수호, 부산고 투수 김정엽, 강릉영동대 투수 최건희, 휘문고 투수 나연우, 경기상업고 투수 임다온, 전주고 내야수 엄준현, 유신고 투수 이성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을 순서대로 지명했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서 광주·전남 지역 선수로는 광주일고가 유일하게 세 명의 지명자를 배출했다. 투수 김태현이 롯데자이언츠에 1라운드 4순위, 투수 권현우가 삼성라이온즈에 5라운드 3순위로 부름을 받았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고승환, 실업단대항육상 금빛 질주

남자 200m… 이재성은 2위

광주시청 고승환과 이재성이 제35회 KTFL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승환은 11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58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재성은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73을 기록, 팀 동료 고승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서민준(서천군청)은 20초80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고승환과 이재성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김국영, 이정태와 호흡을 맞춰 400m 계주에서 한국 타이 기록인 38.47초를 수립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광주시청은 대회 첫날인 10일 남자 400m 계주 금메달(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효)과 여자 100m 금메달(강다슬), 남자 100m 은메달(이재성), 여자 1만m 동메달(노현진)을 기록했다.

최동환 기자